[일대일가족 8] 일대일은 가장 좋은 전도도구

2001 / 페이지 수: 3

40명이 넘는 동반자를 배출한 송유신 장로이지만 그에게도 양육자가 있었다. 지금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재영 장로.

열정이 많은 송재영 장로는 일대일 양육을 하기 위해서 울산이든, 목포든 어디서든 달려왔다. 양육을 하면서 종종 송유신 장로와는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 후 87년 하용조 목사에게 양육자교육을 받았다. 아마 하용조 목사의 양육자반 교육은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다.

양육자반을 마치자마자 연결된 이한호 집사와의 첫 양육. 이미 성경공부를 잘하고 있던 이 집사였기 때문에 나눔을 많이 했다. 이한호 집사와 함께 5명이 함께 양육을 받았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와 야외에서 양육하는 등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송 장로는 언제나 "저하고 양육을 할 때는 전체 그림만 그리고 양육자반에서 잘 배우라"며 교제에 힘썼다.

'일대일은 나의 사명'

송 장로로부터 '숨은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한호 집사는 일대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다. 80년도 여의도에서 단기사역에 헌신한 후 차일피일하다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평신도가 사역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던 이전교회와는 너무도 달랐다. 온누리교회에서 성인양육의 기회를 얻은 이 집사는 이전에 헌신한 것이 기억나서 '일대일양육'을 시작했다.

줄잡아 50명 정도는 양육한 이 집사는 북한이 열리면 일대일양육을 통해 북한교회를 재건할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일대일 팀 사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이 잘 구성되어 교회를 세우다가 북한에 가서 사역한다는 계획이다. 이 집사는 서슴지 않고 '저는 온누리교회에 양육하러 다녀요'라고 말한다.

서정엽 집사는 이렇듯 열정적인 이한호 집사와 여름에 만났다. 서 집사 내외와 또 다른 부부와 함께 양육을 했는데 양육 장소가 마땅치 않아 6인승 승합차를 한 강변에 주차하고 다리 밑에서 일대일을 하곤 했다. 얼마나 열심인지 교재를 공부하면서 그대로 현장실습을 하곤 했다. 한번은 '전도'를 배우고 나서 외딴 섬에 가서 실제로 전도를 하기도 했고, '기도'를 배우면 청평 근처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 섬에서 조개를 줍던 기억, 그때 먹던 소머리국밥, 그 후론 그렇게 맛있는 것은 먹어보지 못했다.

예수님도 한 사람 불러 양육했죠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원해 왔던 서정엽 집사는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시흥 시에 교회를 세워 목회를 한 지가 3년째다. 그에게 일대일양육은 너무도 좋은 경험이 되었지만 아직 교회에는 접목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그만한 인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5년 남짓 온누리교회에 머물다간 서 집사의 유일한 동반자는 백인호 집사 부부이다.

소탈한 성격의 백인호 집사는 동생 같아서 참 좋았다. 특히 부인인 이은미 집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를 많이 하곤 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만난 지 오래되었지만 종종 걱정이 된다.

서 집사는 일대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도 한 사람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3년 양육 하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불순종하였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던 예수님.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일대일양육인거 같아요"라고.

백인호 집사는 일대일양육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했다. 그래도 그는 큰 감흥이 없었다. 단지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의무감만 있었을 뿐.

그런데 오히려 수료예배에서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 16주정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서 집사의 수고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다. 감사해서 참 많이 울었다.

양육자반을 마치자마자 시작된 양육. 같은 순의 순원들의 요청으로 두 팀을 한꺼번에 시작해서 참으로 열정적으로 양육했다.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던 정철규 성도는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회복되었다. 백집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그 후 백집사는 양육을 통해 사역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회복되는 동반자들을 볼 때 마다 이전의 종교적인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

더구나 교환교수로 있는 동안 보스톤의 한 교회가 일대일을 통해 부흥되었을 때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교회의 부흥도 좋았지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제는 양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된다. 그래서 일대일 사역 팀에서 사역도 하고 있고 BEE세미나도 열심히 참여한다. 장차 BEE사역자가 될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백집사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성장시켜 준 것은 '일대일'이라고 말한다.

선경식 형제는 부서에서 연결시켜준 백인호 집사와 일대일을 하게 되었다. 직업이 교수여서인지 백집사는 언제나 가르침이 명쾌했다. 삼위일체 등 난해한 문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을 받으면서 쌓인 자식들이 마치 구슬이 실에 꿰어지듯 정리가 되었다. 더구나 몸에 익은 신앙생활도 선경식 형제에게 큰 모범이 되었다.

구슬을 실에 꿰듯

당시 선경식 형제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결혼'이었다. 그럴 때마다 백집사는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앞으로 '양육을 꼭 하라'는 신앙의 격려도 잊지 않았다. 백집사는 시간이 없으면 새벽이라도 만나서 양육을 기어이 하고야 마는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양육은 꼭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곤 했다.

선경식 형제의 양육의 주안점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최대성 형제를 양육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최대성 형제는 회사가 IMF를 맞아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이어서 고민하고 불안해 할 때 양육자 선경식 형제를 만났다. 그때 선경식 형제는 이 문제에 "사장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 주었다. 그때까지 불안하고 민감해져있던 최대성 형제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제 서야 내면 깊숙한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랬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후에도 최대성 형제에게 이 말은 모든 일에 적용되었다. 양육을 받고난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랬다. "멀리 있었

http://file.cgntv.net

던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에 오셨다.”

그 일 외에도 결혼을 앞둔 상태였던 최대성 형제는 고민거리가 많았다. 결혼준비를 하면서 생기는 갈등과 생각 차이들. 그때마다 선경식 형제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잘 정리를 해주었다.

최대성 형제는 앞으로 양육을 하게 된다면 선경식 형제처럼 친밀함과 사랑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 양육은 교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므로.

*** 출처 : 큐티와일대일**